

#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채진영(전북대학교 전임강사)

## I. 서론

최근 ‘행복’이 사회 전반에 키워드가 되어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200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중국, 일본, 한국의 청소년 2,000여명 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85.3%)과 일본(74.4%) 청소년들 보다 한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57.6%)(보건복지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이러한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정신건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의 현재 삶에 대한 만족 정도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일탈행위 및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의 삶을 질을 나타내는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에 만족 정도에 학업스트레스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청소년기에는 또래와의 관계가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 여전히 부모는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안식처이며 청소년의 삶에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Markiewicz, Lawford, Doyle, & Haggart, 2006)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녀 발달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여성가족부, 2011)에 의하면 42% 정도의 청소년이 아버지와 하루 30분의 대화도 못한다고 응답하였고, 7% 정도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삶에 어머니 못지 않게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하나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역시 여전히 미흡하다(남진열, 김상미, 2011). 따라서 국내 청소년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 정도에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아버지의 영향과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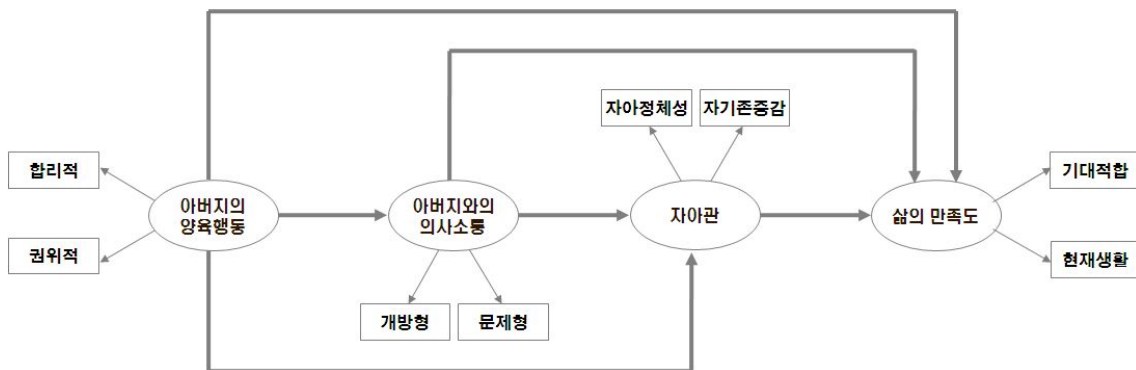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적게 보이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청소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며(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Huebner, 2004; Piko & Hamvai, 2010), 청소년과 부모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덜 역기능적일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조성연, 김민, 2010; 문영숙, 2008).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나타났는데(신미, 전성희, 유미숙, 2010; Civitci & Civitci, 2009), 이는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관을 지니고 있을 때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

으로 인식함을 의미하며,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자아관 형성은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데, 아버지가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 청소년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된다(남진열, 김상미, 2011).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성 확립이다(Erikson, 1968). 아버지가 제공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민, 2009; Finzi-Dottan, Bilu, & Golubchik, 2011). 즉 부모-자녀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기능적인 가족의 형태를 보일 때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Beyers & Goossens, 2008). 이렇듯 청소년은 자신에게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아버지와의 원활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존중할 줄 알며 현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등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한다. 즉,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내적작동모델이 타인에 대한 인식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자녀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장영애, 이영자, 2007)으로, 부모가 보이는 양육행동은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권재환, 이은희, 2006). 즉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 부모는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중학생 자녀와의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 및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받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은 중학생의 자아관 및 삶의 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받은 중학생의 자아관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아버지와 관련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므로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그동안 간과되었던 아버지의 영향이 청소년의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아버지 영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해 구축된 연구 가설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 가설모형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이 교육통계연보(교육과학기술부, 2009)에 기초하여 전국의 중학생을 모집단으로 규모비례확률표집법을 적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개 지역의 중학교 1~3학년 2,9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KSYC-Familial Consciousness)의 자료 가운데 결측응답이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2,82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남학생 1,411명(49.9%), 여학생 1,418명(50.1%)이며, 1학년은 898명(31.7%), 2학년은 982명(34.7%), 3학년은 949명(33.5%)이었다. 아버지와 동거하는 학생은 2,589명(91.5%), 비동거인 상태는 240명(8.5%)이며, 아버지의 학력은 초졸 32명(1.1%), 중졸 102명(3.6%), 고졸 1,063명(37.6%), 전문대졸 312명(11.1%), 4년제 대졸 935명(33.1%), 대학원졸 이상이 337명(11.9%)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삶의 만족도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현재 자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기대적합’이라는 하위요인에는 ‘지금 나의 생활은 내가 바라던 대로이다’ 등 2문항이, ‘현재생활’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등 3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은 현재 삶이 자신의 기대에 적합하다고 느끼며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0, .84이다.

#### 2) 아버지의 양육행동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관련된 10 문항을 사용하였다. ‘합리적 양육행동’이라는 하위요인에는 ‘가족이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할 때 그 이유를 내게 설명해 주신다’ 등 5문항이, ‘권위적 양육행동’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내가 당신의 기대대로 행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 등 5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권위적 양육행동과 관련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는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며 권위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임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3, .78이다.

#### 3)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개방형 의사소통’이라는 하위요인에는 ‘나의 소신을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등 5문항이, '문제형 의사소통'이라는 하위요인에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등 4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문제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개방적이며 문제가 적을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4, .77이다.

#### 4) 자아관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청소년 대상 설문지 중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관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정체성'라는 하위요인에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등 8문항이, '자아존중감'라는 하위요인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등 9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은 자아정체성이 긍정적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hronbach의  $\alpha$  계수는 순서대로 .87, .87이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9.0과 AMOS 7.0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한다.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방정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 III. 연구결과

중학생의 지각하는 삶에 대한 기대적합, 현재생활 만족도와 아버지의 합리적·권위적 양육 행동, 아버지와의 개방적·문제적 의사소통, 자아정체성 및 자아존중감의 평균 점수와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이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행동( $M=2.88$ ,  $SD=4.30$ )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보통 이상이었으며 특히 아버지의 합리적 양육행동( $M=3.58$ ,  $SD=4.17$ )과 자아정체성( $M=3.51$ ,  $SD=5.49$ )의 평균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표 1> 각 도구별 가능 점수 범위, 평균 및 표준편차

(N=2,829)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아버지의 양육행동	합리적	3.58	4.17
	권위적	2.88	4.30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개방적	3.26	4.54
	문제적	3.05	3.28
자아관	자아정체성	3.51	5.49
	자존중감	3.46	5.82
삶의 만족도	기대적합	3.05	1.94
	현재생활	3.22	2.93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적인 행동과 자아정체성 및 자아존중감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각 변인들 간에는 유의수준 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상관계수의 분포는 .07~.84이었다. 기대 적합이나 현재생활 만족 등으로 나타나는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행동( $r_{\text{권위적 양육행동-기대적합}}=.09, p<.01, r_{\text{권위적 양육행동-현재생활}}=.09, p<.01$ ) 또는 아버지와의 문제적 의사소통( $r_{\text{문제적 의사소통-기대적합}}=.24, p<.01, r_{\text{문제적 의사소통-현재생활}}=.28, p<.01$ ) 등 부정적인 요인과의 상관계수보다 합리적 양육행동( $r_{\text{합리적 양육행동-기대적합}}=.44, p<.01, r_{\text{합리적 양육행동-현재생활}}=.46, p<.01$ ) 또는 개방형 의사소통( $r_{\text{개방형 의사소통-기대적합}}=.50, p<.01, r_{\text{개방형 의사소통-현재생활}}=.51, p<.01$ ) 등 긍정적인 요인과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다. 즉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의사소통은 중학생의 삶에 대한 높은 만족과 관련이 더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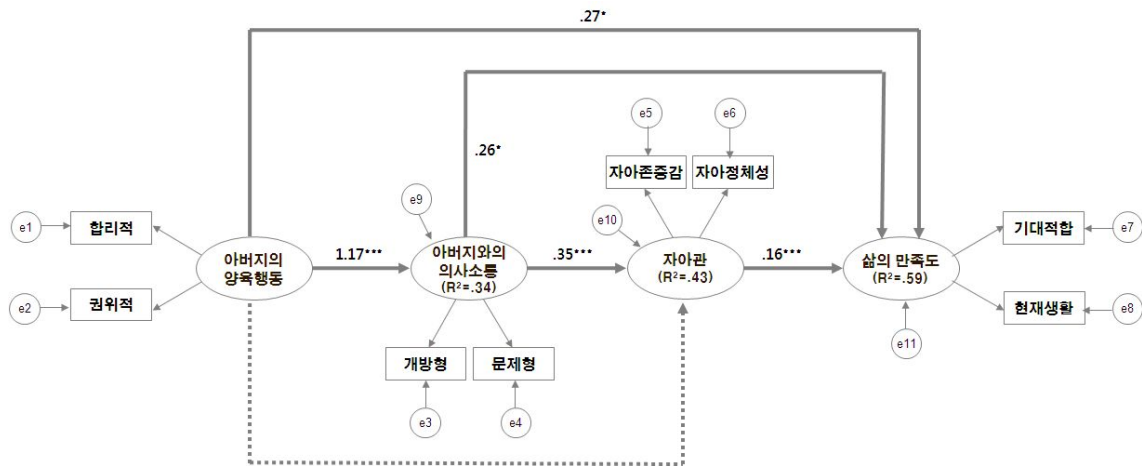
<표 2>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1. 아버지의 합리적 양육행동	1.00							
2. 아버지의 권위적 양육행동	.09**	1.00						
3. 아버지와의 개방적 의사소통	.70**	.07**	1.00					
4. 아버지와의 문제적 의사소통	.29**	.37**	.31**	1.00				
5. 자아정체성	.32**	.02	.35**	.12**	1.00			
6. 자아존중감	.35**	.02	.35**	.09**	.67**	1.00		
7. 기대적합	.44**	.09**	.50**	.24**	.40**	.38**	1.00	
8. 현재생활	.46**	.09**	.51**	.28**	.37**	.36**	.84**	1.00

\*\*p< .01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축한 연구 가설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chi^2=1089.369, df=27, GFI=.930, TLI=.899, CFI=.903, RMSEA=.108$ 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자아관에 이르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모형이 보다 적합한 모형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외하고 <그림 2>와 같이 수정하였다.



<그림 2> 연구 수정모형

우선 연구 수정모형이 적합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구한 결과,  $\chi^2=1089.912$ ,  $df=28$ ,  $GFI=.932$ ,  $TLI=.914$ ,  $CFI=.913$ ,  $RMSEA=.06$ 이었다. 연구 가설모형에 비해 연구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향상되어 적합한 수준이었다. 연구 수정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표 3>과 같으며,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긍정적일수록 중학생과 아버지간의 의사소통도 긍정적( $\beta=1.17$ ,  $p<.001$ )이었으며,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beta=.27$ ,  $p<.05$ ).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일수록 중학생의 자아관은 긍정적( $\beta=.35$ ,  $p<.001$ )이었으며, 삶의 만족도 역시 높았다( $\beta=.26$ ,  $p<.05$ ). 또한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았다( $\beta=.16$ ,  $p<.001$ ). 이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분산의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3개의 변인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반 이상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연구 수정모형의 계수 추정치

계수 경로	B	$\beta$	S.E.	C.R.
아버지의 양육행동 →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8.18	1.17	1.71	4.79***
아버지의 양육행동 → 삶의 만족도	.87	.27	.42	2.08*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 자아관	.44	.35	.03	16.28***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 삶의 만족도	.12	.26	.06	1.84*
자아관 → 삶의 만족도	.06	.16	.01	5.84***

\* $p<.05$ , \*\*\* $p<.001$

유의한 경로계수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여 효과분해를 실시하였고,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한 결과, 모든 간접효과는 .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분해의 결과는 <표 4>와 같고, 제시된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이다.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직접효과( $\beta=.27, p<.05$ )와 의사소통( $\beta=1.17, p<.001$ )과 자아관을 거쳐( $\beta=.41, p<.01$ ) 정적인 간접효과( $\beta=.36, p<.01$ )를 보여 .63의 총효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1 표준편차 증가하였을 때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에 가정된 모든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63 표준편차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은 정적인 직접효과( $\beta=.26, p<.05$ )와 자아관을 거쳐( $\beta=.35, p<.001$ ) 정적인 간접효과( $\beta=.06, p<.01$ )를 통하여 .31의 총효과를 보였다. 이는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1 표준편차 증가하였을 때,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간에 가정된 모든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통하여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31 표준편차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자아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직접효과( $\beta=.16, p<.001$ )를 보여 청소년의 자아관이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하였을 때 삶의 만족도는 .16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크기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분해

변인		bootstrapping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아버지의 양육행동	1.166		1.166
	자아관		.406	.406
자아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349		.349
	아버지의 양육행동	.271	.363	.634
삶의 만족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257	.055	.312
	자아관	.158		.158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과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을 거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총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가 보이는 양육행동을 통한 상호작용의 관계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합리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경우 개방적인 의사소통 하는 등을 통해 중학생 자녀와 맺는 긍정적인 관계를 통해 중학생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는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아버지의 양육행동은 중학생의 자아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은 아버지의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은 아버지와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여부에 아버지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아버지-청소년의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청소년을 둔 가정 내에서의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자아에 대한 요인 이외에도 생태학적인 입장에서 중학생의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관련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입체적인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의 관계는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파악한다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재환, 이은희(2006). 남녀 청소년의 충동성, 부모의 양육태도, 개인의 통제력,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1), 325-351.
- 김혜원, 조성연, 김민(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대한 공부 중요성 인식, 공부압력과 성공압력의 영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재효과. **대한가정학회지**, 48(5), 49-60.
- 남진열, 김상미(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아버지 역할수행의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2), 315-334.
- 문영숙(2008).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14(4), 405-414.
- 보건복지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신미, 전성희, 유미숙(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이지민(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1033.
- Beyers, W. & Goossens, L.(2008). Dynamics of perceived parenting and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31, 165-184.



- Civitci, N., & Civitci, A.(2009). Self-esteem as mediator and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neliness and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 954-958.
- Eric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inzi-Dottan, R., Bilu, R., & Golubchik, P. (2011). Agg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former Soviet Union Immigrant adolescents: The role of parenting style and ego identit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918-926.
- Huebner, E. S.(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 Research, 66*, 3-33.
- Markiewics, D., Lawford, H., Doyle, A. B., & Haggart, N. (2006). Developmental differences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use of mothers, fathers, best friends, and romantic partners to fulfill attachment nee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127-140.
- Piko, B. F., & Hamvai, C.(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 1479-1482.

##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 혁 준(가톨릭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아버지 관련 변인(양육행동과 의사소통)과 중학생 자신 변인(자아관)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었다.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참여가 당연하지만 여전히 양육과 가사를 어머니가 전담하는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있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증진은 매우 필요하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발표자가 일부 지적하였듯이, 청소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 청소년 통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15~24세 청소년 69.6%는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2008년 56.5%와 비교하여 13.1%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8.8%로 나타났고 실제 청소년 사망 원인 1순위 또한 자살이며,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1순위는 '저녁식사'였지만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특히, 42.1%의 청소년은 아버지와의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청소년의 61.6%는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동 방법으로 'TV나 DVD 시청'이라고 답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 대해 몇 가지 논의점 및 제안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 중 아버지의 양육행동, 의사소통, 중학생의 자아관 만을 변인으로 선정한 근거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현재는 각 변인이 중학생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을 뿐 세 변인이 중학생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변인들이라는 근거는 빈약하다.

둘째, 연구방법에서 측정도구에 대한 문제이다. 물론 2010 세대간 가족의식 비교조사의 자료이므로 측정도구의 문항 수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연구의 제한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특히, 종속변인인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를 5문항으로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측정도구의 출처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모든 측정도구가 청소년이 지각하는 내용이라 실제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 수준인지 해석에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자가 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타당해 보이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를 고려해 볼 때 학년(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아버지의 합리적인 양육행동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중학생의 긍정적인 자아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즉, 아버지의 가족생활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와 가족내 아버지의 역할 교육 강화 등 미래 사회투자 관점에서 아버지 참여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면, 가족 간의 소통 및 가족관계 회복 등을 위하여 한 달에 한번 관공서, 기업 등의 정시 퇴근을 장려하고 학교 및 학원의 야간 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패밀리 데이’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